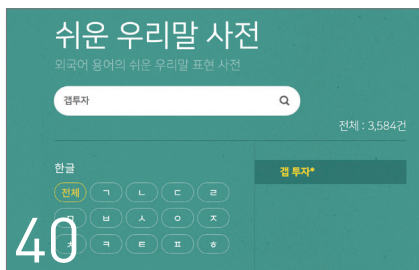




## 차례



### 발간사

공공언어에서 쉬운 우리말 문화를 꽃피웁시다 – 이건범 03

### 생각 더하기 ①

문물과 언어 ‘모빌리티’를 보면서 – 최기영 04

### 생각 더하기 ②

범람하는 ‘챌린지’란 말, 그러나 ‘챌린지’는 틀린 ‘일본식 영어’ – 소준섭 08

### 국어기본법 따라잡기

11

### 공모전 입상수기

‘언어 복지’, 언어에도 사람이 산다 – 으뜸상 박성근 19

아버지를 간병하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 버금상 정현환 22

모듈러 교사? 그분은 어떤 선생님이셔? – 버금상 최혜정 26

### 만화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 너의 이름은? 29

### 사례 나누기

한국도로공사, 일본어와 외국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다 – 곽현준 36

‘쉬운 우리말 사전’ 소개 40

2021년에 만들어진 새말 소개 42

2022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46

이렇게 바꿨습니다 49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50

책 소개 51

### 쉬운 우리말을 쓰자

펴낸날 2021.12.31.

발행인 이건범

기획 한글문화연대 편집 김명진 구자우 조한솔 디자인 제이알컴(주)

펴낸곳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46 (도화동, 정우빌딩) 303호

전화 02)780-5084

전자우편 urimal@urimal.org

ISBN 979-11-959147-3-9 03700

© 2021, 한글문화연대



# 공공언어에서 쉬운 우리말 문화를 꽃피웁시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알기 쉬운 공공언어를 사  
용하자는 정책과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외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시민이 공적인 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하려면 알기 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오바  
마 정부 시절에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 Act)'을 만들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쉽게 쓰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이 민간과 정부에서 벌어져  
법률과 공문서, 계약서, 약관 등을 쉽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법의 뒷받침을 받아  
가며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사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공공언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생각은 외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6백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는 한자를 읽을 수 없어 제 뜻을 퍼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  
해 알기 쉬운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문자만이 아  
니라, 말에서도 쉬운 우리말을 써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어기본법에 담겼습  
니다.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라는 법 조항이 우리나라 공공언어 사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쉬운 우리말을 쓰자>는 헌법과 국어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공공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일  
반 국민이 알기 쉬워질까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나름의 실천 방안을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에 가장 앞장섰고, 알기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을 끌어온 한글문화연  
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분기마다 이 책자를 만듭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전문가들의 의  
견글과 시민들의 수기, 국어기본법 열개 해설, 한국도로공사의 전문 용어 표준화 사례, 시민들이 참여  
한 다양한 개선 사례, 만화 한 편, 2021년에 외국어 신조어 대신 쓰도록 만든 새말 목록, 꼭 바꿔써야  
할 말 50개의 목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문화를 꽃피우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어문화원에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 문물과 언어 ‘모빌리티’를 보면서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전 인하대학교 국제화사업단장, 현 교무처장)  
무인기 개발, 항공우주 관련 각종 정책 자문 등 업무 수행

몇 해 전에 유학생 유치와 교류 확대의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중앙아시아는 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한 5개의 국가로 구성된 지역으로, 과거에 투르크스탄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투르크(돌궐)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들 국가의 언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간의 일상적 소통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 출장길에 우즈베크인 직원 한 명과 같이 다녔다.

우즈베크스탄은 과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로 사마르칸트의 고구려 사신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다. 오랜 기간 동안 동서 교역의 중심이었던 만큼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산다. 중국에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우즈베크스탄은 인구 3천만 명에 150개가 넘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언어도 다양해서 우즈베크인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할 줄 안다. 공용어인 우즈베크어를 기본으로 서남쪽은 이란과 가까워 페르시아어까지 함께 쓴다. 오랜 기간 소련에 속해 있었기에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러시아어가 더 편하기도 하다.

동행했던 이 친구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지 한국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 덕에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말을 잘했다. 게다가 러시아어와 영어도 잘했기에 어느 나라를 가든 통역으로 든든했다. 한 번은 함께 터키에 갔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쪽 운전기사와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터키어도 배웠느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터키어도 같은 어족에 속해서 기본적인 말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언어에 특별히 소질이 있는 친구여서 그러려니 했지만, 궁금해서 어떤 말들이 주로 다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비행기’를 예로 들었다.

비행기를 터키어로는 ‘우착uçak’이라 하는데, 우즈베크어로는 ‘사말리오토 samolyot’라고 한다. 우즈베크어 samolyot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아입 궁전의 사진도

“ 1930년대, 영국의 무인기 이름은 Queen Bee(여왕벌),  
이를 개량한 미국의 무인기 이름은 Drone(수벌),  
여기서 드론이라는 용어가 유래하였다. ”

는 러시아어 ‘썬말리오토타samolyot’에서 왔다.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 편입된 것이 1924년이므로, 비행기가 우즈베크에서 일상적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니 소련이 비행기와 함께 들어온 러시아어가 우즈베크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문물의 발달과 함께 단어들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문물이 수입될 때 단어들도 함께 들어오기 일쑤다.

우리가 요즘은 드론이라는 걸 자주 보게 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쓴다. 드론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인기라는 단어를 주로 썼다. 영어권에서는 Unmanned Aerial Vehicle 혹은 줄여서 UAV라고 쓰는데, 이것 그대로 번역하면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기가 되는 것이다.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처음 성공한 것이 1903년이었는데 불과 10~20년 후에 혼자서 날아가는 무인기가 등장했다. 물론 그 당시의 무인기는 주로 군사용이고 성능도 지금보다 형편없었지만, 이처럼 무인기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1930년대 영국군은 무선 조종기로 날리는 비행기를 개발해서 훈련에 쓰고 있었고, 그걸 본 미국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인기를 개발했다. 당시 영국의 무인기 이름은 Queen Bee(여왕벌)이었는데 이것을 개량한 미국인들은 자기들 무인기에 Drone(수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서 우리가 쓰는 드론이라는 용어가 유래하였다. 취미용으로 가지고 다니며 사진이나 찍고 하는 드론이 이제는 승객을 싣고 복잡한 도심에 가로질러 다닐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아직은 개발 단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도시의 교통체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자 미래의 주요 산업 중



UAM-Cover: 미래 도심 항공운송 체계 (미국 나사NASA)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런 항공기를 언론에서는 ‘드론 택시’라고 부르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줄여서 UAM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그에 맞게 새로운 말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도심 항공을 포함한 미래교통체계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는 것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용어다. 물론 이 말도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이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시작한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능형 smart’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보면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서 교통상황을 인지하며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수단인데, 실제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 범위를 넘어서 차량 공유, 친환경 등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을 언론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라 부르는데, (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이를 ‘개인형 이동장치’라 부른다. 하나의 용어가 사람마다 분야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나라마다 쓰임새가 다를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transportation과 구별하여,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모빌리티라 정의하기도 한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빌리티를 확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차가 있어도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있으면 모빌리티는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파생 기술과 제품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용어와 물건 또는 기술을 1 대 1로 맺어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블록체인, 오버더탑(OTT), 메타버스, ...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들인데 그 단어만 보서는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새로운 용어와 기술에 대한 적응도는 세대와 계층을 가르는 경계석이 될 것이다. 국어의 위기다. 우리말의 구조야 바뀌지 않겠지만, 새로운 문물에 관련된 단어들은 외국어 또는 신조어로 가득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 개념조차 사람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다. 나라에서 모든 단어를 정의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도 않지만, 핵심이 되는 사물, 기술,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표준 단어의 제정이 필요하다. 마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등 다양한 이름이 혼용될 때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용어로 통일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빌리티'의 쓰임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사용 분야에 알맞은 구체성과 추상성을 담은 용어로 번역하려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하나의 말로 1:1 대응이 불가능하니 그냥 외국어를 쓰자는 쪽으로 기울어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에 한계를 자초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 북한과 협력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한글전용주의를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를 가급적 우리말로 뜻풀이해서 쓰고 있다. 어떤 단어들은 그 기발함에 놀라기도 한다. 앞의 우즈벡-터키어의 분화에서 본 것처럼 언어는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과 같

### “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 북한과 협력하면 어떨까 ”

“ 핵심이 되는 사물, 기술,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표준 단어의 제정이 필요하다. ”

이 문물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겪고 난 후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언어의 이질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질 것이다. 우리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언어의 사용이 필수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나날이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전 세계가 인터넷과 편리한 항공운송 체계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각을 주고받는다. 그만큼 새로운 개념이 늘어나고,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동일한 개념에 동일한 용어를 써야 하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쓸 수 있는 말들이 정립되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OPPAV: 풍동시험 중인 미래형 개인비행기 (항공우주연구원)

## 범람하는 ‘챌린지’란 말, 그러나 ‘챌린지’는 틀린 ‘일본식 영어’

‘일본식 영어 베끼기’를 그만둬야 할 이유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우리 주변에서 ‘챌린지’라는 말을 최근 들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퉀 각종 행사에 ‘챌린지’란 말을 붙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

# 9월 걷기 챌린지

기간: 2021. 9. 6.~30.(총25일간)  
 목표: 21만보 걷기(1일 최대 9,000보 인정)  
 목표달성자 선착순 300명 도서문화상품권 제공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독서로 힐링하세요!**

걷기 챌린지 홍보물(출처: 창녕군청)

- 창녕군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책 읽는 창녕, 독서하는 군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2021년 9월 3일).
-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세이프 아프간 위민(Save Afa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2021년 9월 6일).
- 무안군은 최근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사랑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2021년 9월 6일).



‘챌린지’는 원래 ‘커다란 난관’이나 ‘곤경’ 등 부정적인 뜻을 지닌다.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챌린지’란 용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 단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외국어 단어 남용은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더구나 너도나도 앞다퉈 쓰는 이 ‘챌린지(challenge)’는 오용되고 있는 말이다. 본래 영어 ‘챌린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챌린지’의 어원인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증상모략’ 혹은 ‘비방’이다. 당연히 그로부터 나온 ‘챌린지’ 역시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영미권에서 ‘챌린지’라는 말은 ‘커다란 난관’이나 ‘곤경’ 또는 ‘이의 제기’를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다. 우리 주변에서 남발하는 것처럼 “좋은 목표나 꿈에 도전한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동사로서 ‘챌린지’는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용법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명사 ‘챌린지’는 ‘매우 어려운 시련’이라는 뜻이다.

### 영어 ‘챌린지’는 본래 ‘긍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챌린지’란 말이 바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영어라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챌린지’란 일본식 영어를 한국 사회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정확한 일본식 영어를 우리 사회에 들여와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챌린지’라는 말을 쓰는 일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의 차원에서조차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일제 강점기에 왜 일제는 우리말과 글을 송두리째 빼앗고 없애려고 광분했으며, 우리 선열들이 왜 그토록

“일본에서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챌린지’란 일본식 영어를 한국 사회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노력하고 헌신했는가를 이 시점에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도전!”을 외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그간 일본 방송을 모방해 온 우리 방송계의 관행으로 미뤄볼 때 이 장면 역시 일본 방송에서 쓰는 ‘챌린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 일본식 영어, ‘챌린지’란 말 이제 쓰지 말아야 한다.

### ‘프리토킹’ 소통? 역시 ‘잘못된 일본식 영어’

• 수원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소통 프리토킹’을 개최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했다(2021년 5월 11일).

한편, ‘프리토킹’ 역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영어다. ‘프리토킹’이란 말은 없으며, ‘프리 컨버세이션(free conversation)’이 정확한 영어 표현이다. ‘자유토론’이란 말을 놔두고 왜 하필 ‘틀린’ 일본식 영어를 쓰는가! 소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게 된다. 우리 사회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

“ ‘프리토킹’이란 말은 없으며,  
‘프리 컨버세이션(free conversation)’이  
정확한 영어 표현이다.  
‘자유토론’이란 말을 놔두고 왜 하필  
‘틀린’ 일본식 영어를 쓰는가! ”

일본식 영어는 대부분 본래 용어가 지닌 본디 뜻, 즉 원의(原義)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의사소통을 교란한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을 이끄는 기본이며 토대다. 그 기본과 토대가 뒤틀리게 되면 전체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나아가 국제 차원의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가로막고 왜곡한다. ‘일본식 영어 베끼기’를 그만둬야 할 이유다.



‘2030 소통 프리토킹’ 행사 모습  
(출처: 수원시청)



# 국어기본법 따라잡기



## 국어기본법은 왜 만들었을까?

국어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다. 먼저, 목적은 이렇다.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즉, 이 법이 잘 작동한다면 국민이 누리는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고 민족문화가 발전하여 ‘문화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방송과 신문, 기업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있고 수천만의 개인이 있다. 이들이 모두 국어 사용자이지만,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어떤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고, 의무를 지을 조직과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한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언어 사용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개인이나 동호회 같은 곳에 이런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다루고 있고, 개인의 국어 사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제도 두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민의 국어 사용,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에 도움을 줄 방안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국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 제2조에서는 그 이유를 기본 이념 속에서 제시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에서는 언어가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일반적인 진리에서 우리말 국어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끌어낸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이 단일 언어 사회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덕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국어가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 요소이고 나라를 형성하는 수단인지라 후손에게 나라를 제대로 물려주려면 국어를 제대로 물려줘야 문화와 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공용어는 한국어

대한민국은 단일 언어 사회이므로 어디서나 우리말을 쓴다. 우리말 말고 다른 말을 쓰네 어쩌네 하는 논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 누구나 우리말을 사용하므로 정부나 언론,



학교에서도 당연히 우리말을 쓸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남북 대치와 권위주의 정치 탓에 금지되었던 외국 여행이 1989년부터 자유롭게 열리고, 1994년부터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외국인과 교류가 잦아졌다.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2019년말 기준 250만명이 넘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전은 지구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 간다. 외국어의 유입과 사용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개인이야 영어를 쓰든 러시아어나 아랍어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개인들이 공공의 장에서 국가 및 기타 공동체와 공식적인 일로 소통할 때 아무 언어나 사용했다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바벨탑 이야기처럼 언어가 달라지면 소통이 힘들어 엉망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공적인 공간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해두는데, 이를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라고 부른다.**

한 나라에 여러 인종과 민족이 섞여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중 많은 수가 사용하는 복수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최소한 공문서를 여러 개의 공용어 판으로 만들어 제 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도 공용어가 있을까? 국어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국어기본법의 법적 대상물이 ‘한국어’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가 공용어임을 밝힌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공적인 공간과 영역, 공문서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낱말과 문장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 **공문서가 단지 종이 문서만은 아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말(언어)을 다루는데, 말 가운데 입말보다는 주로 글말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공공언어는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입말보다는 기록으로 남는 글말로, 즉 문서로 제시되고 전달되고 근거로 남기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문서’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풀이되어 있고, ‘문서’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서류나 문서가 과거에는 대체로 종이에 인쇄된 형태를 취하



고 있었기에 그런 형태 이외의 것에는 공문서라는 관념을 거절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어기본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공문서는 결코 종이 문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어기본법 제3조 5항에서는 공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즉, 공공기관 등에서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수행과 업무 안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쓴 글이 담긴 모든 매체를 ‘공문서’라고 규정한 것이다. 우선 내용물의 측면에서 글 정보가 아닌 도면과 사진 같은 그림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둘째로,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내용물을 담는 매체 측면에서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종이 외의 매체에 담긴 기록 또한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현수막이나 안내판처럼 매체를 특정할 수 없지만 다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용도로 만드는 안내물 모두 공문서 범주에 포함하였다.



## 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지켜야 할 법

국어기본법 제3조 5항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주체에 관해 언급하였다시피, 이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지켜야 할 책무를 앞세워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 조직에 국어책임관을 두고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할 의무, 국가가 운영해야 할 기구(국어심의회, 국어문화원, 세종학당재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총괄하여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어 사용 환경이 좋아진다면 수천만 국민의 평균적인 국어능력이 높아질 테고, 국민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소설가, 시인, 수필



가, 변론가, 언론인, 출판인 등이 나와 국어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국어기본법에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간섭하거나 국민의 의사 표현을 좌우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오로지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문화를 꽃피우는 데에 바탕을 마련하고 거름을 주는 정책과 제도,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책무 외에 민간의 활동에 관하여 단 한 가지 언급이 있다. ‘국어문화의 확산’을 규정한 제1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와 교육을 의무로 지운 뒤에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대중매체에 한하여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 요청의 성격이 강할 뿐 어떤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나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국어문화의 확산에 관해 대중매체의 임무를 선언적으로 요청한 것에 비해 국어 정보화의 추진을 규정한 제16조 3항에서는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간기업의 책임을 규정한다. 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들이므로 그 공공성 수준이 매우 높은 곳인지라 그리 정한 것이다.

## 2022년부터 공문서를 평가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국어기본법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조항이 바로 제14조이다. ‘공문서 등의 작성과 평가’를 다룬 제14조에서는 먼저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 네 가지를 제시한다.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는 1.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2.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써야 하며, 3. 어문규범에 맞추어 써야 하며, 4.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동안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도 특별한 처벌이나 사후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6월 15일에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문화



체육관광부는 공문서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 2항에서는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평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터인데,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대로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썼는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썼는지, 어문규범에 맞추어 썼는지, 한글로 작성하였는지 등 네 가지가 큰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문규범과 한글 전용은 비교적 평가가 쉽지만, 알기 쉬운 용어라는 기준에서는 용어의 난이도를 규정하여 용어 목록을 정비하는 일이, 알기 쉬운 문장 기준에서는 주관성을 벗어날 최소한의 원칙을 잡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어쨌거나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신경을 써서 공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문서 작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이나 각 지역 국어문화원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 **국어책임관, 현장에서 공공언어를 지키는 사람들**

국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국어를 책임질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이들의 임무를 규정한다. 법 제10조에서는 이렇게 정하였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 행정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는, 국어책임관이 전문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국어 사용을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체로 홍보 담당자가 겸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국어책임관 본인도 국어책임관의 존재나 지정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게다가 겸직이다 보니 아직 그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하는 국어책임관이 많지 않다.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의 국어능력이 하루아침에 모두 좋아질 수는 없으므로 국어책임관처럼 국어능력과 국어문화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국어기본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국어책임관에 대한 교육에 힘쓰고 이들이 꾸준히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업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언어 복지’, 언어에도 사름이 산다

으뜸상 수상자 박성근



2013년 겨울, 우리 청의 각 국장들이 한데 모였다. 다음 해 각 국의 주요 사업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최종 교차 검토를 하는 회의였다. 회의에서 우리는 다른 국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업무의 문제점을 서로 조언해주곤 했다. 그러나 사실 일종의 불문율처럼 다른 국의 사업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았다.

그날 막 기획국장이 사업 설명을 마쳤을 때였다. 당시 복지국장이던 나는 ‘Any 3 School’이라는 용어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Any 3 School’은 ‘Any one, Any where, Anything School 사업’이라고 했다. 즉 어느 분야든 재능이 있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는 교육 사업이었다. ‘재능 기부 연결 공적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이름을 영어로 짓는 데서 지적 감각성을 찾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했다.

사실 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에 잘 아는 시민 단체 대표님께서 나를 찾아와 이 내용을 이미 하소연했었다. 그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마련한 설명회에 초대받았는데, 바로 그 ‘Any 3 School’이 너무 불편했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완곡하게 설득하니 더 말을 못하신 것 같았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대로 다른 국장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러나 나는 옆자리의 기획국장에게 조심스럽게 사업 이름이 불편하다는 말을 꺼냈다. 덧붙여 앞으로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넌지시 암시했다. 그분은 일리가 있다는 표정은 지었지만 ‘Any 3 school’에 애착이 커 보였다. 그러나 나는 직무를 떠나서라도 쉬운 공공언어 쓰기는 주민보다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며, 이것이 ‘언어 복지’, ‘주민 복지’라고 생각했다.

“‘Any 3 School’ 대신 ‘교육 나눔 구축 사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물러서지 않고 대체할 이름까지 제안했다. 내 단호한 태도에 기획국장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 뒤로도 나는 그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기획국 과장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하는 날이 왔다. 상임위의 회의 장면은 전 부서에서 텔레비전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Any 3 school’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화면을 유심히 살피던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내 예상대로 한 칸칸한 의원이 바로 그 영문 이름을 담당 과장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담당 과장은 소신껏 대답했지만 오히려 그 의원은 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질의를 이어 갔다. 그러자 과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다른 이름을 꺼냈는데, 바로 ‘교육 나눔 구축 사업’이었다. 내가 기획국장에게 제안했던 이름이었다. 내심 놀라면서도 뿌듯했다. 담당 과장이 의외로 재빠르게 대안을 제시하자 의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질의를 마쳤다. 나는 그 시민 단체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고 그분은 민망할 정도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뒤 나는 기획국장으로 직무를 옮겼다. 그리고 나는 가장 먼저 우리 청 전체 부서의 조례를 정비했다. 그동안 우리 청의 조례 조문들은 같은 뜻인데도 부서마다 사용하는 낱말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우리 청의 모든 부서가 하나의 같은 기관이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가 많고 심지어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용어조차 있었다. 나는 먼저 조례 심의위원회 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국어 어문 규범’과 2012년에 제정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영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 등의 낱말을 모두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입장의 고압적인 공공 언어도 모두 순화시켰으며, 어느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즉시 전체 다른 부서에서도 공람·적용하는 틀까지 마련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노력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심지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쉬운 법령 용어에 집착한다는 뒷말도 제법 들려왔다. 그러나 공직자일수록 쉬운 공공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런 노력은 훗날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법령의 용어를 정비했다. 예를 들면, ‘감량의무 이행 계획’은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더 쉽게 바꿨고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했다. 또한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라

“나는 5kg짜리 쌀 한 포대가 삶을 좌우하는 사회 취약층에서 조례를 더 많이 열람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언어는 누구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는 뜻인 ‘자’는 ‘사람’으로 바뀌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5kg짜리 쌀 한 포대가 삶을 좌우하는 사회 취약층에서 조례를 더 많이 열람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언어는 누구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조금씩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대단한 결실을 맛보게 된다.”

꾸준함의 열매를 노래한 샤를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의 명구다. 나는 이 토방의 땀돌 같은 단단한 말을 믿는다.

이제 나도 칠순을 향해 간다. 현직에 있을 때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우리말이 서툴러 불이익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한국어 교사가 되어 그분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었다. 회갑의 나이에 가끔 코피까지 쏟아 가며 공부한 덕분에 국립 국어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았다. 오늘도 줌(Zoom)으로 미국, 나이지리아, 베트남 성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다.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상하게 우리말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말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내 가슴 속 귀엣말일 것이다.

나는 요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위드 코로나’에 도리질을 한다. ‘함께 이기는 코로나’로 하면 어떨까? 오늘도 나는 옛 근무 기관의 최근 조례 모음집을 펼쳐 보았다. 내가 그토록 외친대로 잘 정비된 조례들을 보며 기쁘면서도 조금은 힘겨웠던 추억이 떠올라 울컥해졌다. 그렇게 그리운 추억도 가끔은 지친다.

# 아버지를 간병하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버금상 정현환



“아들, 로드 맵이 뭐야?”

소세포성 폐암이라는 희소암을 앓으셨던 아버지를 2년 7개월 동안 간병했다. 집에 간병인이 꼭 필요했는데 어머니와 동생을 대신해 그 역할을 자처했다. 아버지를 돌보며 동시에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일도 찾았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어느 방송국의 시청자 모니터 위원 활동을 알게 되어 4년 4개월 동안 일했다. 하루에 4시간씩 주말과 평일, 휴일과 명절을 가리지 않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우리말과 글을 확인했다.

오전 4시 30분, 앞을 보는 게 점점 불편해지는 아버지와 티비로 뉴스를 볼 때였다. 정치 소식에서 남성 앵커가 “개헌 로드 맵 제시해야”라고 말했다. 40초 남짓한 단신 뉴스가 끝나고 곧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로드 맵이 뭐야?”라고 물었다. 영상을 보면 로드 맵이 ‘이행안’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는데, 뉴스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로드 맵”이라고만 말하니,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시력 장애가 있던 아버지는 뉴스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로드 맵은 ‘이행안’을 말하는 외국어야”

●● 귀에만 의존해 뉴스를 듣던 아버지가  
“왜 우리말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 말을 써?”  
라고 읊조렸다. ●●

평소 맞춤법이 헛갈리거나 모르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가 검색한다. 그 덕분이었을까. 아버지의 물음에 곧바로 로드 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귀에만 의존해 뉴스를 듣던 아버지가 “왜 우리말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 말을 써”라고 읊조렸다. 그리고 보니 그랬다.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재인 방송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외국어를 이렇게 써도 무방한지,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새벽 4시 30분 뉴스는 4시 59분 단신으로, 다시 5시 58분과 6시 58분, 7시 50분으로 이어졌다. 편성표에 따라 하루에 똑같은 뉴스가 여러 차례 방송됐는데, 그만큼 외국어가 흘러 나왔다. 뉴스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음에도, 이른 아침의 상황은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되풀이됐다. 외국어가 남용되는 상황은 한 달 뒤에도 비슷했고, 10개월이 지난 뒤에도, 4년 뒤에도 다른 뉴스에서 되풀이됐다.

단지 앵커의 성별과 이름, 시간대만 다를 뿐, 외국어가 우리말을 밀어내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매일 뉴스를 설명하며 외국어를 우리말로 풀이해 드렸다. 승객 안전사고 뉴스에 나온 ‘스크린 도어’는 ‘안전문’으로, 스포츠 뉴스에 나온 ‘리턴 매치’는 ‘재대결’이라고 알려드렸다. 방송 길이의 한계, 뉴스 하단 자막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다섯 글자인 외국어보다 세 글자인 우리말이 더 경제적이었음에도 뉴스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했다.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말을 사용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실태도 말씀해 드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에서는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방송과 뉴스에서 앵커와 기자, 자막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말 모임을 만들어 외국어 사용을 줄이려 순화어를 내놓고 있는데, 방송 뉴스에서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씌으로써 이러한 과정과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 규정과 노력을 참고하여 2017년 2회, 2018년 27회, 2019년 12회, 2020년 28회에 걸쳐 뉴스에서 우리말을 잘 사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방송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람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면 저절로 세상과 단절된다. 암 후유증을 겪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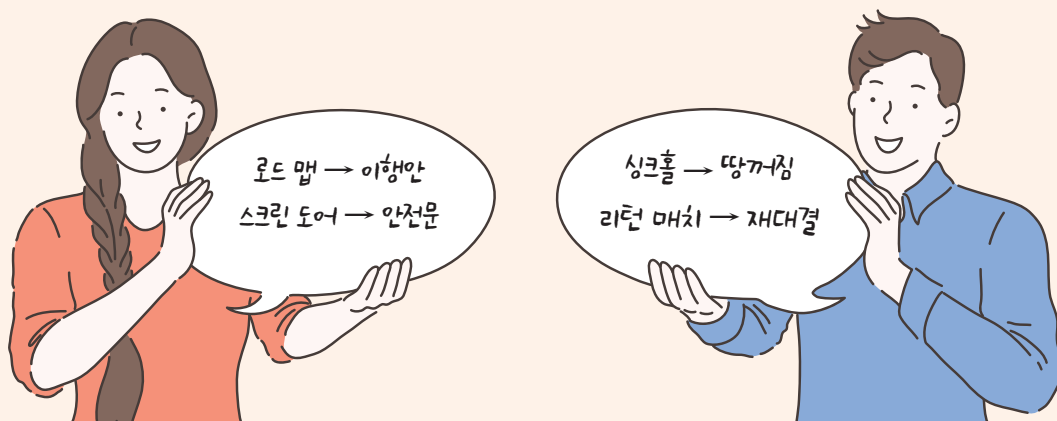


를 돌보던 2년 7개월이라는 모든 순간과 공간이 그러했다. 바깥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과 아버지를 어떻게든 연결하려는 내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게 세상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 방송 뉴스를 같이 보며 읽어드렸다. 뉴스에 외국어가 나올 때마다, 국립국어원 순화어 목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뉴스를 읽어드리며 싱크홀은 ‘땅꺼짐’, 포트 홀은 ‘도로 파임’이라고 알려드렸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 살얼음’이라는 뜻이며, 앞으로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면 함께 달릴 길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코너에 몰린 한진家”라는 자막보다 “구석에 몰린 한진가(家)”라고 쓰는 게 의미가 더 분명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우리 아들 많이 아네.”라는 아버지의 말에 속으로 기뻐지만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며, 무심하게 뉴스를 봤다.

그렇게 아버지를 약 3년 동안 간병하고 뉴스를 읽어드리며 알게 됐다. 나 스스로 그동안 무심코 받아들였던 외국어가 너무 많았으며, 또 지금 방송 환경에서 우리말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다. 외국어 남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1년 9개월 더 시청자 모니터 위원을 하며, 총 69회에 걸쳐 외국어 오남용 실태를 꼬집었다.

❖ 그렇게 아버지를 약 3년 동안 간병하고 뉴스를 읽어드리며 알게 됐다. 나 스스로 그동안 무심코 받아들였던 외국어가 너무 많았으며, 또 지금 방송 환경에서 우리말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다. ♡♡



❖ 우연히 느낀 우리말의 소중함을 잊고 싶지 않아  
오늘도 혹시 새롭게 나온 순화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말은 이제 나에게 생활이자 습관이다. ♡

그 진심이 통했을까. 어느 날 방송국 작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평소 소셜미디어에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과 고민을 남긴 글을 보고,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온 섭외 전화였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뉴스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예능 자막에서 우리말과 한글이 파괴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렇게 2020년에 방송이 됐다. 누군가에게는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그 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값진 시간이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무엇이 더 큰가?”

불교 경전 가운데 〈나선비구경〉이라고 불리는 〈밀린다왕문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을 받은 나가세나 존자는 “달궂진 쇠구슬을 알고 잡는 이와 모르고 잡는 이 중에 누가 더 크게 다치겠는가. 모르고 잡은 이가 더 크게 다친다. 모르고 짓는 죄는 이와 같이 과가 더 크다.”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를 간병하고 뉴스를 직접 읽어드리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밀린다왕문경〉의 문답을 본 뒤부터는 그 의미를 톡톡히 곱씹고 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우리말을 너무 몰랐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청자 모니터 위원 활동도 끝났지만,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외국어를 볼 때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을 찾는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연히 느낀 우리말의 소중함을 잊고 싶지 않아 오늘도 혹시 새롭게 나온 순화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말은 이제 나에게 생활이자 습관이다.

## 모듈러 교사? 그분은 어떤 선생님이셔?

버금상 최혜정



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5년 차 교사이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약 1시간 정도를 운전하며 출퇴근하는데,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교육부 장관이 ‘모듈러 교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교사인 탓인지 교육 관련 소식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모듈러 교사’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생긴 교원 제도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력을 가진 선생님을 뽑는 새로운 제도인가?’, ‘새로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지?’ 등등 혼자 별별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학교에 도착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함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후에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운영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문득 아침에 들었던 ‘모듈러 교사’에 관한 라디오 방송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던 몇몇 선생님들께 ‘모듈러 교사’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선생님, 혹시 모듈러 교사라고 들어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들어보니 교육부 장관님이 모듈러 교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학교를 방문하신다던데요?”

“모듈러 교사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옆에 계신 선생님께 물어보아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들 생소해 했다. 그래서 예정에 없이 다 함께 ‘모듈러 교사’를 조사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휴대 전화로, 어떤 이는 컴퓨터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듈러 교사’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자,

“과밀 학급 해소에도 모듈러 교사(뉴스1, 2021. 10. 8.)”라는 기사가 있어요.”

“모듈러 교사 운영 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대경일보, 2021. 10. 13.)”라는 기사도 있네요.”

“유은혜 부총리, 모듈러 교사 현장 의견 청취(뉴시스, 2021. 10. 8.)”라는 기사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모듈러 교사’와 관련한 기사 제목을 읽었다. 다들 교사이기에 현장의 교원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어떤 교사들이 학교에 새로 오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한 자료를 마땅히 찾을 수 없던 상황에서 누군가 ‘교육부 보도자료\*’를 찾았다고 말하며, 뜻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듈러 교사’의 뜻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를 줄 알고 모두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듈러 교사’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이란 뜻이었다. 낡고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 단장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새로운 교원 제도나 특정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게 전혀 아니었다.

힘든 과정을 거쳐 ‘모듈러 교사’의 뜻을 알고 나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교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여기저기서,

“우리 너무 무식한 거 아녜요?”

라며, 반성하는 목소리와 함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랐다.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모듈러 교사’를 ‘이동식 학교 건물’이라고 풀어 써서 독자들에게 정확한 뜻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한 것처럼, 국민이 보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쉬운 우리 말글을 쓰는 게 좋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과 신문 기사에서 굳이

“국민이 보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쉬운 우리 말글을 쓰는 게 좋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과 신문 기사에서 굳이 이런 정체 불명의 용어를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반감이 들었다.”

\* ①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2021. 7. 26.) ②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조달청 혁신 과제 선정(2021. 2. 8.)

이런 정체불명의 용어를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반감이 들었다. 따져 보면, ‘모듈러’는 조립과 관련된 ‘영어’ 표현이고, ‘교사(校舍)’는 학교 건물을 가리키는 ‘한자어’로 우리말이 아닌 다른 두 나라의 말이 만나서 만들어진 정체불명의 말이다. 가뜩이나 뒤에 붙은 ‘교사’는 선생님을 뜻하는 ‘교사(敎士)’와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동형어’이기에 우리의 이런 오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에 몸담은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혼란을 겪고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공공언어란, 공공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이기에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써야 할 것이다. ‘가이드’를 ‘지침’이나 ‘안내’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 이후’, ‘워크북’은 ‘익힘책’으로, ‘퍼실리테이터’는 ‘조력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언어의 경제성이나 명료성 차원에서도 훨씬 이득이 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어려운 행정 용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7억 원에 달하고, 어려운 정책 용어를 개선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이 연간 11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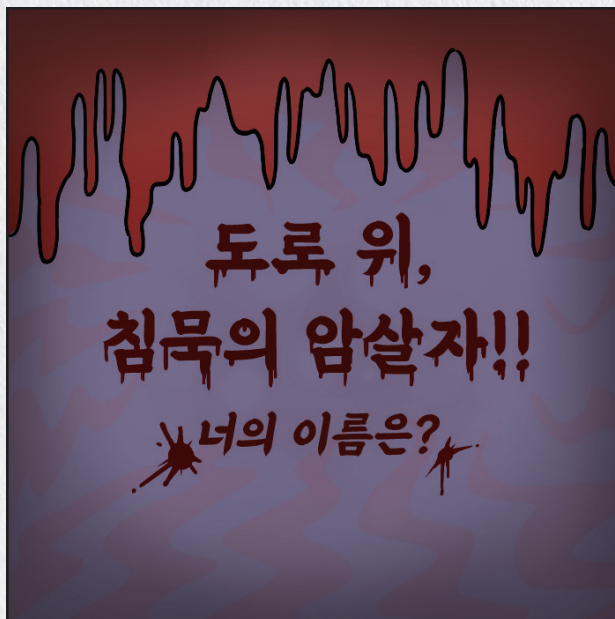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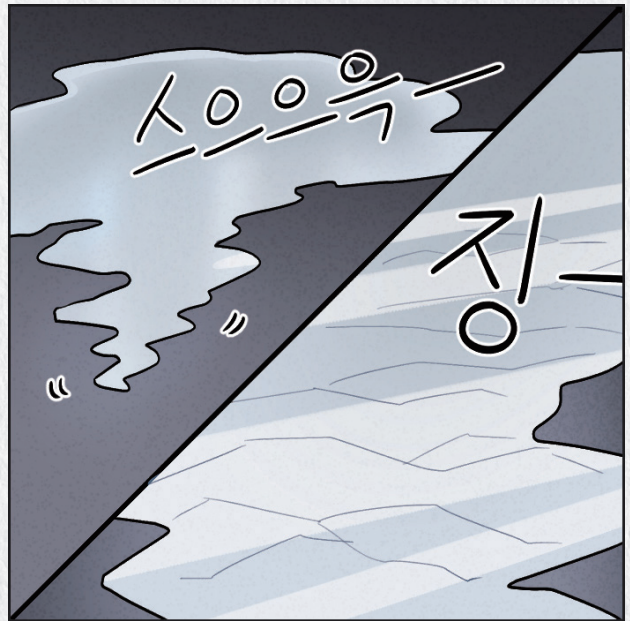
“공급하는 태도로 정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접하게 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수요자 중심’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기를 희망해 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모듈러 교사’처럼, 언론이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국적 불명이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표현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표현을 이른바 ‘공급자 중심의 언어’라고 부르고 싶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지향하기에, 쉽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수요자 중심의 언어’, ‘소비자 중심의 언어’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이러한 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정부 기관 등의 공공 기관에서는 각자 준비한 소식(뉴스)과 정책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급하는 태도로 정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접하게 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수요자 중심’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기를 희망해 본다.



#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 너의 이름은?

최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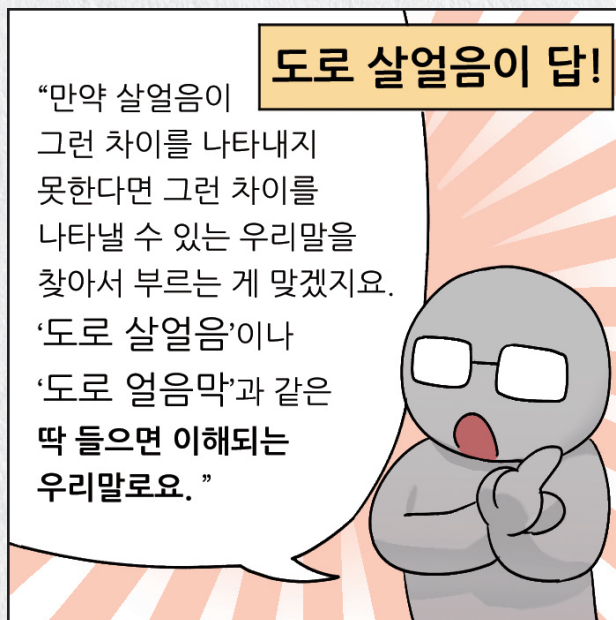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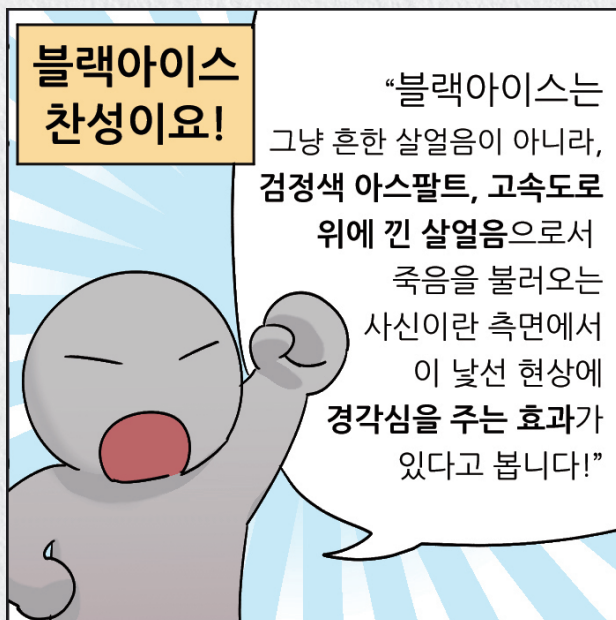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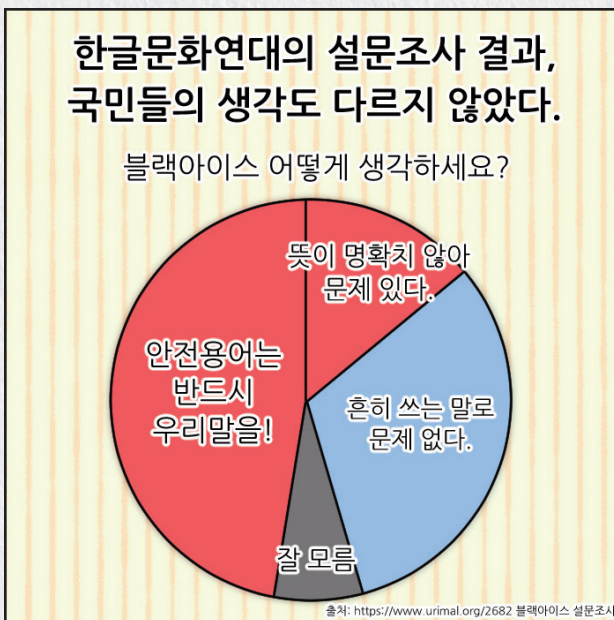
















쉬운 우리말 안전용어는 아직도 배고프다!

코호트 격리	➡	동일집단 격리
드라이브스루 진료	➡	승차 진료
팬데믹	➡	세계적 대유행

바이러스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바뀌었네. 아리아리!





## 한국도로공사, 일본어와 외국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다



곽현준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팀장

누군가에게 처음 경험은 두 번째 경험과는 사뭇 다르고, 유난히도 깊은 기억의 굴곡을 만든다. 나에게도 건설 현장의 첫날은 유독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장에서 나눈 대화 때문이 아닐까 싶다. 현장에서 처음 들은 일본어는 '아시바'였다. 순간, '시바'라고 들은 혈기 왕성한 그때의 나는 이를 욕설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반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시마이, 노가다' 같은 진작 들어본 말은 기본이요, '사시깁, 반생' 같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일본어 낱말들의 향연을 맞닥뜨려야 했다. 한마디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러한 이질감도 잠시, 기이하게도 만 1년이 지나지 않아 나는 원래의 우리말이 오히려 생각나지 않았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건설 현장은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 70년이 넘는 현재에도 건설 국어가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채로 있다. 아니, 오히려 일본어 용어를 쓰지 않으면, 현장을 잘 모르는 샌님으로 여기거나 비하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 언제부터인가는 영어와 한자어까지 범벅이 되어,

건설 현장이 국제시장을 방불할 만큼 다양한 국적의 언어들이 판치고 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제목 '싱크홀'같이 영어 단어 뜻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언어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블로업', '포트홀', '블랙아이스', '램프' 같은 영어와 '나대지', '벌개제근' 같은 한자어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지만, 누구도 오래된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은 하지 못한 채로 건설 현장은 그렇게 70년을 일본어 잔재와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흐름을 바꿔 보고자 시도한 게 한국도로공사의 우리말 순화 정책이었다.

건설 현장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한국도로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고속도로 및 국어 분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그동안 발간된 국어 순화 자료집과 고속도로 설계도서, 도로 분야의 최근 3년간 보도 자료 등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관련 순화 대상 용어를 찾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전홍보와 소통강화를 위해 2020년 7월 '전문용어 순화집 이름 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름 짓기에 2,067건, 외래용어 개선의견 70건의 참여를 끌어냈다. 총 13,800개의 건설 현장 외래용어를 검토하였으며, 건설 현장 순화용어의 공신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최종 감수를 거쳐 240개의 단어로 구성된 책자 "우리길 우리말"을 발간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위와 같은 고속도로 건설용어의 우리말 순화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 4월30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책소통 유공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 노력으로 오랜 시간 굳어온 건설 현장의 일본어 사용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올해 봄, 국토교통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공사의 우리말 순화 노력을 우수하게 보고,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한 제도



국무총리 단체 표창(정책소통 유공분야)을 받다

이다.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 고시가 된다면, 관련 기준 개정이나 교과서 등에 순화된 용어가 실릴 수 있으니, 우리말 표현의 도로용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후, 제도는 현재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로 관련 공무원, 도로 전문가, 언어 전문가 15명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낼 도로 분야의 전문화 표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도로 전문가로는 도로학회, 대한토목학회 등에서 참석하고, 국어 전문가로는 영남대학교 이미향 교수님, 한글학회 리의도 이사님,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님과 국립국어원에서도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추진하는 ‘도로 분야 전문용어’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어에는 도로 전문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사용해서 용어가 바뀌면 오히려 현장이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순간 ‘초등학교’와 ‘오른쪽 통행하기’와 같은 오래된 일본문화 혹은 언어를 바꾼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결국 우리 고유의 것으로 환원시켰으니 말이다. 협의회에서는 일부 단어는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하였다.

다듬은 전문용어는 국립국어원의 검토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 총리 표창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왼쪽)과 함께

의 심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게 된다. 행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와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575돌 한글날을 맞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에도 비대면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쉬운 영상 홍보물 제작, 도로 전문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학회 기고, 토목 박람회(Civil Expo) 참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자료 배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바뀐 우리말에 적응할 수 있게 건설 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앱 알리미를 활용하고, 도로 관련기관에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의견 받 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용어를 개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노력을 마무리할 때,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라고 평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우리말이라도’ 건설 현장과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자리잡힐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결이 시작되길 바란다.

곽현준 | 한국도로공사 남북도로협력처장

1992년 한국도로공사 입사 후 구조물처, 기획조정실, 지역본부 및 건설사업단 등을 거쳐 건설처 건설계획팀장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총괄 업무를 맡았었다.

### 국토교통부 교통 및 물류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번호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띄어쓰기 포함)
1	싱크홀	sinkhole	망꺼짐
2	포트 홀	pot hole	도로파임
3	블랙아이스	black ice	① 도로살얼음, ② 노면살얼음
4	블로업, 블로우업	blow-up	도로솟음
5	램프	ramp	연결로
6	사인보드, 싸인보드	sign board	안전유도판
7	럼블스트립	rumble strip	노면요철포장
8	보틀넥 현상, 무빙 보틀넥 현상	bottleneck 現象, moving bottleneck 現象	병목현상
9	패칭	patching	포장메꿈
10	쁘레카, 뿌레카	ブレーカー	착암기
11	크러셔	crusher	쇄석기
12	하이드롤릭	hydraulic	① 유압식, ② 수압식
13	스키드마크	skid mark	① 타이어밀린자국, ② 밀린자국
14	다이크	dike, dyke	배수턱
15	안전 펜스	安全 fence	안전울타리
16	에코코리더, 에코브리지, 에코브릿지	eco-corridor, eco-bridge	생태통로
17	아웃트리거	outrigger	내민지지대
18	바리케이드, 바이케이트	barricade	① 통행차단울타리, ② 차단울타리 ③ 바리케이드
19	레커, 레커차, 렉카, 렉카차	wrecker 車	견인차
20	톨게이트, TG	tollgate, TG(Tollgate)	요금소
21	톨비	tollgate費	통행료
22	도로 VMS	道路 VMS(Variable Message Signs)	도로전광표지
23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시설
24	프리캐스트	precast	① 구조물사전제작, ② 사전제작
25	크랙	crack	균열
26	나대지	裸地	빈터
27	벌개제근	伐開除根	수목제거
28	방현망	防眩網	눈부심방지망
29	제형	梯形	사다리꼴

번호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띄어쓰기 포함)
30	심도	深度	깊이
31	연장	延長	길이
32	삭초	削草	풀베기
33	도포	塗布	바름
34	주행 차로	走行車路	정속차로
35	길어깨, 노견	길어깨, 路肩	① 갓길, ② 길어깨
36	기점	起點, 基點	① 시작점, ② 기준점
37	공로	公路	공공도로
38	시담	示談	협의
39	배면	背面	뒷면
40	상행선, 하행선	上行線, 下行線	○○방향
41	노폭	路幅	도로폭
42	나라시	ならし [均し]	고르기
43	사시깡	←さしきん [差(し)金]	삽입철근
44	시마이	しまい [仕舞(い) 終い]	끝
45	오사마리	おさまり [収まり, 納まり]	마무리
46	단도리	だんどり [段取(り)]	① 채비, ② 단속
47	데나오시, 데나우시	でなおし [出直し]	재시공
48	루베	←りゅうべい [立米]	세제곱미터
49	헤베	←へいべい [平米]	제곱미터
50	마끼자	←ま [巻]き자	줄자
51	바라시	ばらし	① 해체작업, ② 해체
52	반생	←ばんせん [番線]	묵음철사
53	아시바	あしば [足場]	작업발판
54	노가다, 노가대, 도가다	←どかた [土方]	① 현장근로, ② 현장근로자
55	시다	した [下]	보조원
56	함바	はんば [飯場]	현장식당
57	야장	野帳	현장기록부
58	시건	施鍵	잠금



## ‘쉬운 우리말 사전’ 소개

- 3,584개 외국어 대신 쓸 쉬운 우리말, 온라인 사전으로 제공
- 용어마다 3개 이상의 다양한 예문 제시
- 공공기관 누리집에 무료 탑재 가능



공공 분야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언론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3,584개에 대해 쉬운 우리말 대체어와 다양한 용례, 용어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전은 한글문화연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 2021년 10월 8일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내려받아 각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탑재하거나 대화 로봇 기능을 설치할 수 있어서 일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우리말 사전’이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나라 공공언어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많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문제가 된다는 사정입니다. 한글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 47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 14,956건 가운데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은 전체의 51.2%인 7,662건이었습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보도자료 23,206건에서도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이 전체의 57.4%인 13,693건이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절반이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14조 1항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 넘는 정부 보도자료에서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는 사태에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하기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검색 장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에서는 국어 전문가와 일반 시민, 시인 등이 합동으로 1년에 걸쳐 ‘쉬운 우리말 사전’을 구축하여, 이를 온라인 사전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어려운 외국어를 대신할 새말 정보자료는 달마다 추가됩니다. ‘쉬운 우리말 검색’ 에이피아이와 대화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최신의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쉬운 우리말 사전

### 쉬운 우리말 사전

외국어 용어의 쉬운 우리말 표현 사전

전체 : 3,584건

한글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로마자

전체

A	B	C	D
E	F	G	H
J	K	L	M
O	P	Q	R
T	U	V	W
X	Y	Z	

숫자/기타

전체

1	2	3	4
5	6	7	8
9			

### 갭 투자\*

원어 표기 | gap 투자

**바꾸어 쓴 예문**

급증하는 **갭 투자**, 내년부터는 상시 조사한다.

급증하는 **시세 차익 투자**, 내년부터는 상시 조사한다.

**갭 투자** 등 투기성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종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종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시세 차익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기타 낱말 정보**

정부 보도자료 평가용 용어

**외국어의 국민 이해도 조사(2020년)**

33%

21%

## 2. 공개 에이피아이

쉬운우리말을쓰자

알림쉬운 말공공언어통계참여이야기

쉬운 말

쉬운 우리말 사전

새말

공개 에이피아이

대화 로봇

외국어 검사기

### 공개 에이피아이

#### 1. 소개

[쉬운 우리말 검색] 서비스를 2021년 10월 9일부터 공개 에이피아이(Open API)로 제공합니다.

[쉬운 우리말 검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가 주관한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사업에서 일반 시민과 국어 전문가, 시민운동가, 시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글문화연대가 개발하였습니다.

이 에이피아이는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쉬운 우리말 사전은 외국어를 대체할 우리말과 바꾸어 쓴 예문들, 여러 낱말 정보를 보여줍니다. 누리집 "쉬운 우리말을 쓰자"(<https://www.plainkorean.kr>)에서 이 쉬운 우리말 사전과 대화창 형태의 검색 프로그램(챗봇)을 적용하였고, 공개 에이피아이 사용 방법도 안내합니다.

공개 에이피아이의 사용은 무료이며, 오픈API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등으로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원본 정보를 사용하기 편리한 '제이에스오엔엘(JSONL)' 형식으로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 2. 사용방법

\* 공개 에이피아이 요청 주소: <https://plainkorean.kr/api.jsp>

\* 쉬운 우리말 에이피아이 서비스 이용 안내

: 개발 표준을 위해 JSON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2021년에 만들어진 새말 소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신조어를 대체할 새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외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달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는 일이다. 새말모임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어 신조어의 의미와 쓰임새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여 새말을 발표한다. 새말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여론 조사도 거친다.

'부스터 샷'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가 접종'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의 검색창에서 '새말'을 검색하거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의 쉬운 말>새말 화면에서 발표된 새말들을 확인할 수 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1	고스팅	ghosting	고용 잠적	직장이나 면접 등에 나오기로 약속해 놓고 별다른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 주로 직장의 면접 대상자나 신입 사원들의 이러한 행동을 일컫는다.
2	그린 포트폴리오	green portfolio	친환경 수익 전략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 전략.
3	직 워커	gig worker	초단기 노동자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 계약 기간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도 해당될 수 있다.
4	다크 스토어	dark store	배송 전용 매장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소규모 물류 거점.
5	데스크테리어	deskterior	책상 꾸미기	사무실 등의 책상을 꾸미는 일.
6	디마케팅	demarketing	수요 축소 (전략)	기업이 자사 상품의 판매량을 줄이려는 마케팅 활동.
7	디엠	DM←direct message	쪽지	누리 소통망(SNS) 사용자들이 각각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 주고받는 말.
8	디지털 디톡스	digital detox	디지털 거리 두기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9	레몬 마켓	lemon market	정보 불균형 시장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이 속아서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값만 지불하려 하고, 이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
10	로컬 크리에이터	local creator	지역 가치 창출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주로 지자체나 국가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거나 퇴색한 지역 문화를 되살릴 목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한다.
11	롱 코비드	long Covid	코로나 감염 후유증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에게 증상 발현 후 나타나는 후유증.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발병 후 3개월쯤부터 호흡 곤란, 인지 장애, 피로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며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된다.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12	리걸테크	legal tech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	각종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 통신 기술, 또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변호사 검색, 법률 상담 신청, 법령 검색 등을 구현 또는 서비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리빙 랩	living lab	생활 실험실	생활 영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간. 또는 그러한 공동체.
14	리셀 테크	reselltech	재판매 투자	인기 있는 물건을 제 가격이나 비교적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되팔아 돈을 버는 일.
15	리유저블 컵	reusable cup	다회용 컵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
16	리클라이너	recliner	각도 조절 폭신 의자	등받이나 발받침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안락의자.
17	마이너스 옵션	minus option	제외 선택제, 제외 선택권, 제외 선택 사항	기본 선택 사항에서 일부 사항을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는 방식.
18	메디컬 푸어, 메디 푸어	medical poor	의료 빈곤층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그런 계층.
19	메타버스	metaverse	확장 가상 세계, 가상 융합 세계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상의 인물이나 분신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또는 그러한 세계를 이르는 말.
20	백 브리핑	back briefing	덧보고	공식적인 보고가 끝난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보고.
21	벌크 업	bulk up	근육 키우기	식사량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하여 근육량을 늘리고 체격을 키우는 일.
22	부스터 샷, 부스터 샷	booster shot	추가 접종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로 접종하는 것.
23	북 아트	book art	책 꾸밈	창의적 요소를 더하여 책의 표지나 속지 등을 예술적으로 꾸미는 일 또는 그렇게 꾸민 책.
24	비즈 매칭	business-matching	사업자 연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일.
25	비치코밍	beachcombing	해변 정화	바닷가로 떠밀려 온 표류물, 쓰레기 등을 거두어 모으는 행위를 빗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26	빈지 워칭	binge watching	몰아 보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의 시리즈물 따위를 한꺼번에 여러 편 몰아서 보는 일.
27	쇼룸	showroom	체험 전시실	특정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상품을 진열하거나 전시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28	스테이케이션	staycation	근거리 휴가	휴가철에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에 머물면서 휴가를 즐기는 일.
29	슬리포노믹스	sleeponomics	숙면 산업, 숙면 경제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
30	슬립 테크	sleep tech	숙면 기술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로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숙면을 도와주는 용품을 개발하는 기술.
31	실버 서퍼	silver surfer	디지털 친화 어르신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노년층을 이르는 말.
32	아웃링크	out link	외부 연결 (방식)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의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33	애슬레저	athleisure	일상 운동복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면서 일상복으로도 편히 입을 수 있는 옷을 일컫는 말.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34	에이징 커브	aging curve	노화 곡선	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기량이 하락하는 현상. 주로 운동 선수의 기량을 평가할 때 쓰이는 말이다.
35	오너 리스크	owner risk	경영주발 악재	대주주(지배 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
36	오너 코드, 아너 코드*	honor code	명예 규율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준수하는 행위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 ※ 아너 코드*(비규범 표기)
37	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 전략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전략.
38	워커밸	worker-customer balance	주객 평등	소비자도 근로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감정적·태도적 균형을 일컫는 말.
39	워케이션	worcation	휴가지 원격 근무	원격 근무의 한 형태로, 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40	웰에이징	well-aging	건강 노년맞이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며 나이 드는 것.
41	인링크	in link	내부 연결 (방식)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의 결과를 그 사이트 내에서 찾아 보여주는 방식.
42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 정보 기술	거대 자료, 인공 지능, 가상 화폐, 사물 인터넷(IoT)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보험 산업 기술을 일컫는 말.
43	잡 크래프팅	job crafting	자발적 직무 설계	자신의 업무 가운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킴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일.
44	젠더 프리 캐스팅	gender free casting	탈성별 배역 (선정)	연극이나 영화에서 성에 의한 제약이나 차별을 최대한 배제하여 배역을 정하는 일.
45	칼테크	calmtech	자동 편의 기술	이용자가 세밀히 조작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공지능, 컴퓨터, 감지기 등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세세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46	케어 푸드	care food	돌봄식, 돌봄 음식	노인이나 환자 등 특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이들에게 각기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도록 한 음식.
47	코로나 (19) 쇼크	corona (19) shock	코로나 충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혼란이나 충격.
48	코로나 레드	corona red	코로나 분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짜증이나 분노.
49	코로나 블랙	corona black	코로나 절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나 좌절감.
50	콜키지, 코르크 차지	corkage, cork charge	주류 반입비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
51	쿠키 영상	cookie 映像	부록 영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편이 끝난 후에 추가로 짧게 나오는 영상. 엔지(NG) 장면이나 후일담, 속편 예고 등이 있다.
52	쿨링 포그	cooling fog	안개형 냉각, 안개형 냉각수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안개 형태로 분사되는 물, 또는 그런 장치.
53	크라우드 워커	crowd worker	대규모 참여형 노동자	기업의 생산, 서비스와 같은 활동에 의견을 제안하거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참여자로 일하는 사람.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54	크로스 미디어, 크로스 미디어 기법	cross media, cross media 技法	매체 다양화 기법	어떤 사항이나 내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에게 노출하는 방법.
55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	비격리 여행 권역, 여행 안전 권역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 지역이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
56	팝업 가든	pop-up garden	반짝 정원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는 짧은 기간 동안 조성하여 즐기는 소규모 정원식 공간 및 시설.
57	펀 세이빙	fun saving	놀이형 저축	가입자에게 유리한 금리보다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금융 상품.
58	펜슈머	funsumer	오락적 소비자	물건을 구매할 때 재미있는 상품을 선호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실용성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
59	펜트업 효과	pent-up 效果	수요 분출 효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억제된 수요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60	펫 로스 증후군	pet loss 症候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현상.
61	펫코노미	petconomy←pet+economy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이르는 말. 주로 간식, 영양제, 의류 등 반려동물용품이나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이른다.
62	포모 증후군	FOMO Syndrome ← Fear Of Missing Out 症候群	소외 불안 증후군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63	포지티브 규제	positive 規制	최소 허용 규제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64	푸드 리퍼브	food refurb	식자재 새활용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
65	푸드테크	food tech	첨단 식품 기술	식품 산업과 식품 관련 산업에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식품의 생산이나 가공 과정 등을 관리하는 기법.
66	플러스 옵션	plus option	추가 선택제, 추가 선택권, 추가 선택 사항	기본 선택 사항 외에 일부 사항을 수요자가 추가하는 방식.
67	피버팅	pivoting	전략 급선회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거나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 추진 방향이나 대응 방식, 목표 등을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
68	필터 버블	filter bubble	정보 여과 현상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해 적절한 정보를 골라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는 현상. 이용자는 자칫 편향된 정보나 특정 성향의 기사 등만 접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69	하이퍼 로컬	hyper local	동네 생활권	기존의 지역(로컬)보다 더 좁은 영역.
70	홈루덴스	home ludens	집놀이족	바깥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놀이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
71	홈코노미	homeconomy ←home+economy	재택 경제 활동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 활동.

# 2022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번호	대상어	원어 표기	대체어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예문) 유초중고에 <del>AI</del> → <b>인공 지능</b> 과목을 신설해 2025년부터 본격화한다.			
2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예문) 정부가 겨울 철새 이동을 앞두고 <del>AI</del> → <b>조류 인플루엔자</b> 차단 대비에 나섰다.			
3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문) <del>ASF</del> → <b>아프리카 돼지 열병</b> 확산 차단으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4	BRT	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예문)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del>BRT</del> → <b>간선 급행 버스</b>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닌다.			
5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사회 가치 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
(예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del>ESG</del> → <b>사회 가치 경영</b> 이 부각되고 있다.			
6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예문)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del>FTA</del> → <b>자유 무역 협정</b> 을 체결했다.			
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예문) 제약 업계에서 의약품 <del>GMP</del> → <b>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b>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8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예문) 이달부터 햄·베이컨에도 <del>HACCP</del> → <b>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b> 이 적용된다.			
9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예문) 청년들의 열정과 첨단 <del>ICT</del> → <b>정보 통신 기술</b> 로 농촌이 바뀌어 간다.			
10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예문) 돌봄과 <del>IoT</del> → <b>사물 인터넷</b>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1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
(예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del>IP</del> → <b>지적 재산</b> 분쟁 대응을 돕는다.			
12	IR	Investor Relations	기업 투자 설명회
(예문) 신산업 증가에 따라 <del>IR</del> → <b>기업 투자 설명회</b> 전문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3	IT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
(예문) 르네상스 걸작과 <del>IT</del> → <b>정보 기술</b> 의 만남,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전'이 열린다.			
14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예문) 세계녹색성장기구는 기획재정부와 <del>MOU</del> → <b>업무 협약</b> 을 맺었다.			
15	n차 감염	n次 感染	연쇄 감염, 연속 감염
(예문) 연휴 뒤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한 <del>n차 감염</del> → <b>연쇄 감염</b> 확산이 우려된다.			
16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예문) 의료 취약국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del>ODA</del> → <b>공적 개발 원조</b> 도 계속 확대한다.			

번호	대상어	원어 표기	대체어
17	OTT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예문) <del>OTT</del> → <b>온라인 동영상 서비스</b>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8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1인 전동차
(예문) 이륜차 및 <del>PM</del> → <b>개인형 이동장치</b>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19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문) 감염병특별위원회가 국가 감염병 R&D → <b>연구 개발</b> 추진 체계를 고도화한다.			
20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예문) <del>SNS</del> → <b>사회 관계망</b> 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21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예문) SOC → <b>사회 기반 시설</b> 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			
22	TF	Task Force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팀
(예문)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del>TF</del> → <b>전담반</b> 을 구성해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3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예문) 인천시가 <del>UAM</del> → <b>도심 항공 교통</b> 특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전망이다.			
24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예문) 게임하듯 VR → <b>가상 현실</b> 로 실습하고 화상 수업한다			
25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예문) 코로나 시대, <del>WHO</del> → <b>세계보건기구</b> 가 제안한 새로운 지침을 알아본다.			
26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예문) 호주가 중국의 관세 폭탄에 강력 반발해 <del>WTO</del> → <b>세계무역기구</b> 제소를 시사했다.			
27	가이드라인	Guideline	지침, 기준, 방침
(예문) 상한제 맞춰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 <b>지침</b> 손본다.			
28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협력, 협치
(예문) <del>거버넌스</del> → <b>민관 협력</b> 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발전 방안			
29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물
(예문) 디지털트윈 → <b>디지털 복제</b> 로 가상 공간에 우리 국토를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30	라이브 커머스	Live Commerce	실시간 방송 판매
(예문)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del>라이브 커머스</del> → <b>실시간 방송 판매</b> 를 진행한다.			
31	로드 맵	Road map	이행안, 단계별 이행안, 일정 계획
(예문) 미래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로드맵 → <b>단계별 이행안</b> 을 마련한다.			
32	로컬 푸드	Local food	지역 먹거리, 지역 먹을거리, 향토 먹을거리
(예문) 공공 기관 급식에 <del>로컬 푸드</del> → <b>지역 먹거리</b> 를 공급하고 있다.			
33	리스크	Risk	위험, 손해 우려
(예문) 이 작업은 <del>리스크</del> → <b>위험</b> 이 너무 크다.			



번호	대상어	원어 표기	대체어
34	매뉴얼	Manual	설명서, 지침, 지침서, 안내서
(예문) 잘 모르겠으면 <b>매뉴얼</b> → <b>설명서</b> 를 참고하십시오.			
35	메타버스	Metaverse	확장 가상 세계, 가상 융합 세계
(예문)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b>메타버스</b> → <b>확장 가상 세계</b> 에 대한 관심이 높다.			
36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수단, 탈 것
(예문) 더 다양하고 편리한 <b>모빌리티</b> → <b>이동 수단</b>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37	바우처	Voucher	이용권
(예문) 저소득층 8000명에게 연 35만 원의 '평생 교육 <b>바우처</b> → <b>이용권</b> '을 지원한다.			
38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사업 모형
(예문)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b>비즈니스 모델</b> → <b>사업 모형</b> 을 발굴한다.			
39	세션	Session	분과, 부, 시간
(예문) 학술 대회는 일반 논문 <b>세션</b> → <b>분과</b> 와 대학원생 우수 논문 발표 <b>세션</b> → <b>분과</b> 로 진행된다.			
40	셧다운	Shut down	중단, 활동 정지, 일시 휴업
(예문) 김해공항 국제선은 <b>셧다운</b> → <b>일시 휴업</b> 으로 입출국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41	스쿨 존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구역
(예문)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b>스쿨존</b> → <b>어린이 보호 구역</b> 1만 6,912곳을 전수 점검한다.			
42	시너지	Synergy	상승, 상승 효과, 동반 상승, 동반 상승 효과
(예문)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b>시너지</b> → <b>동반 상승</b> 효과를 낼 전망이다.			
43	싱크홀	Sink Hole	땅꺼짐, 꺼진 구멍, 함몰 구멍
(예문)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b>싱크홀</b> → <b>땅꺼짐</b> 이 발생하여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44	아카이브	Archive	자료 보관소, 기록 보관소
(예문) 항만 개발 등 해양 역사를 <b>아카이브</b> → <b>기록 보관소</b> 로 구축한다.			
45	언택트	Non-contacted	비대면
(예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언택트 → <b>비대면</b> 으로 주문할 수 있다.			
46	원스톱	One-stop	일괄, 통합
(예문) 이제는 집에서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b>원스톱</b> → <b>일괄</b> 로 처리가 가능하다.			
47	이 커머스	E-commerce	전자 상거래
(예문) <b>이커머스</b> → <b>전자 상거래</b> 시장은 날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48	인센티브	Incentive	성과급, 유인책, 특전, 혜택, 장려 혜택
(예문)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b>혜택</b> 을 강화한다.			
49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 기반 시설
(예문)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b>인프라</b> → <b>기반</b> 을 확충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50	챌린지	Challenge	① 참여 잇기, 도전 잇기 ② 공모전, 대회, 경진 대회
(예문) 시는 자전거 출퇴근 <b>챌린지</b> → <b>참여 잇기</b> 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Safe Korea’ 119의 구호가 바뀐다

119의 약속 ‘Safe Korea’는 2006년 소방방재청 공모에서 뽑힌 구호이다. 이를 고쳐달라는 국민 제안을 받고 2021년 4월에 확인한 결과, 소방방재청에서는 2019년 3월부터 “국민 중심의 안전가치에 일상의 안심을 더합니다.”라는 우리말 구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국 소방서에도 우리말 구호로 바꿔쓰라고 공문을 보냄에 따라 실제로 전국 많은 소방서에서 우리말 구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다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서울시 종로소방서를 시작으로 ‘Safe Korea’를 사용한 전국 소방서 60곳을 찾아내 우리말 구호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하나되는 국민 소방, 함께 하는 국민 안전’(경기도 양주 소방서) 등 19곳의 소방서에서 쉬운 우리말 구호로 바꾸었고, 9곳은 우리말로 변경할 예정이며, 10곳은 ‘Safe Korea’ 표기를 삭제했다고 답했다.

### 키스 앤 라이드(Kiss & Ride)는 환승정차구역!

‘Kiss & Ride’ 혹은 ‘K & R’,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 표시는 기차 승객을 배웅하거나 마중하러 차를 몰고 왔을 때 잠깐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을 뜻한다. 2018년 국립국어원에서 ‘환승정차구역’으로 대안어를 내놓았으나 이미 전국 곳곳에 퍼져 심지어 여주시 ‘세종대왕릉역’ 앞에도 ‘K & R’이 자리잡고 있었다. 2017년 신분당선 동천역을 시작으로 한글문화연대와 대학생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가 개선 운동을 펼쳐 수도권 22개 역이 ‘환승정차구역’, ‘잠시정차구역’ 등 우리말 표기로 바꾸었다. 그런데 2021년 중앙선 원주역 등에도 이 표시 공간이 계속 생겨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강릉역 등 18곳의 표기를 바꾸고 앞으로 우리말로 표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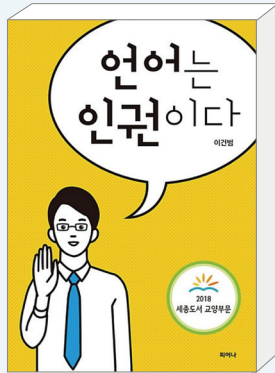


우리 말글 교육, 국어 관련 상담, 공공문장 감수 등 공공언어 사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재지
국립국어원	1599-9979	서울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춘천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53-950-7497~8	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진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044-860-1910	세종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79~7180	부산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061-450-6271	무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천안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서울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67-0861	안양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3628	경산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02-3277-3250	서울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인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광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4-754-2712, 2738	제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청주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3838	서울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서울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42-629-7474	대전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00-4513	안산



우리 말글 상식, 글쓰기, 공공언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 언어는 인권이다

피어나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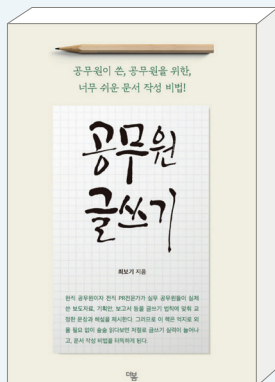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 국어운동 중심에 섰던 저자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임을 강조한다. 공공언어를 다루는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사회지도층, 민주시민을 위한 필독서다.



## 공공언어의 사회철학

피어나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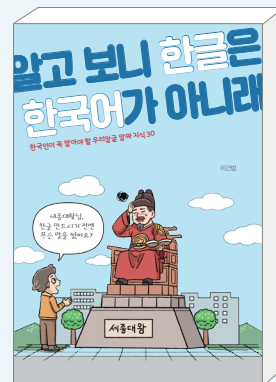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와 의무, 기회와 위험 등을 다루는 공적 정보가 담긴 말, 즉 공공언어가 어떤 사회철학 위에서 쓰이면 공공성이 높아지고 공동선에 다가갈 수 있는지 살펴 본다.



## 공무원 글쓰기

더봄 | 18,000원

현직 공무원이자 유명 북칼럼니스트 최보기 작가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보고서의 단문 및 장문(공지, 보도 자료, 인사말, 연설문, 기고문, SNS)을 간결·명료하게 쓰는 문장비결을 담은 《공무원 글쓰기》를 펴냈다. 일선 공무원들이 쓴 원문과 저자의 교정문, 해설을 붙였다.



##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우리말글 알짜 지식 30

한글문화연대 | 비매품/무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우리  
말글 상식 30가지를 담았다. (한글문화연대 [urimal@urimal.org](mailto:urimal@urimal.org)로 신청하시면 한정된 수량 안에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배송비 착불)



쉬운우리말을쓰자  
<https://plainkorean.kr>

한글문화연대  
<https://www.urimal.org>

